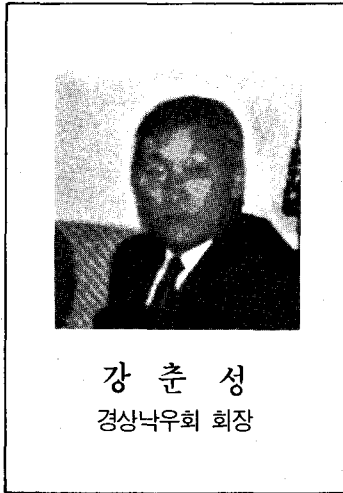


# '89年을 酪協設立의 해로...

87년 6.29선언이후 각계각층에서 분출되어온 민주화의 열기가 사람대접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우리들 농민들에게도 불어왔다. 농민들도 이땅의 국민으로서 사람대접 받아야겠다는 절규가 전국으로 확산 되었으며 그결과 지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농민 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농가부채, 농산물 수입개방, 협동조합의 민주화, 농가소득배가등 제반 농민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자들의 목소리가 농민들의 새로운 위상설정에 큰 전기를 가져다 줄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땅의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을것으로 믿었으며 또다시 거리로 뛰쳐나가 국회의사당이나 정부청사앞에 모여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달라고 울부짖는 목소리로 외치지 아니하여도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의 양반들이 잘알고있으니 알아서 잘



강 춘 성  
경상낙우회 회장

해주려니 하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농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으니 어찌된 일일까? 그네들의 대농민 공약이 표연기위한 기만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농민들을 위해 국정을 다루는것 같이 하는 위정자들은 많지만 진실되게 이땅의 농민들이 생업인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도록 하고있는가?

진실은 뒷전에 두고 농민을 위하는체 하는 그들의 행동이 농민들을 실망시키고 슬피하게 하여 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든것이다. 들쭉는 우리농민들도 이땅의 주인임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농업이나 농민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또한 할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머슴이 주인의 뜻을 받들어 진실되게 모든일들을 처리해준다면 무엇이 좋아 주인노릇 하겠다고 나서겠는가? 머슴이 주인이 주인노릇 못한다고 주인을 주인대접하지 않으니 어쩔수 없어 내가 주인이요. 그래서 주인노릇 하겠다고 할수밖에 없지않는가?

누구도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들의 뜻과 같이 해주리라고 기대할수 없음을 보았으며 또한 기대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농업문제, 농민문제는 우리들이 주체가 되어 해결할수 밖에 없음을 다같이 인식하고 다짐하여야 겠

다.

## 집유선 일원화는 낙농가의 손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대기업의 횡포가 계속 되어서는 이땅의 낙농업이 뿌리를 내려서 정상적인 성장을 할수없음은 분명하다.

제도를 다루는 관료도, 낙농가들을 올려왔던 유가공업체도, 당하기만 하였던 대부분의 낙농가들도 낙농발전을 위해서는 집유선 일원화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다같이 주장은 하고있다.

유가공업체의 횡포저지, 집유비용절감, 원유의 수급조절이 낙농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절감하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집유선 일원화는 누가주도 할것인가? 행정관료인가? 유가공업체인가? 시대의 흐름이, 민주주의의 실체가 모든일들을 행정이 주도하던 과거와 같이 닥아오는 내일에도 그네들에게 맡겨서 잘해 줄것이라고 기다릴수 있는가, 아니다 이제는 그네들도 전처럼 그럴수있는 여건도 아니고 또한 그렇게도 할수없다는 것을 낙농가들이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낙농가들을 올려왔던 유가공업체가 주도하도록 바랄것인가.

이것은 마치 사나운 호랑이에게 집에서 기르는 착한 양을 보아달라는것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착한 양은 잡혀서 먹혀 버릴것이다.

유가공업체가 겉으로 집유선 일원화에 참여 하겠다는 이면에는 이런 저의가 도사리고 있을것이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버티고있다. 집유선 일원화가 지지부진 한것도 유가공업체들의 이런 속셈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유선 일원화가 꼭 이룩되고 그리고 조속히 시행 되어야 한다면 그 주체는 낙농가일수 밖에없다. 낙농가인 내가,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깊이있는 검토와 합의된 결과를 목표로 설정하여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겠다.

## 세계속의 한국인, 낙농인

우리 낙농가들이 원하던 원치않던 이제 우리는 국제화, 개방화, 자유화의 물결을 타지 않을수 없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지구는 더욱 좁아져서 가까워지고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도 모든 인류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있다. 이런 여건속에 우리들이 살아 남을수있는 길은 무엇인가?

세계속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낙농인으로 살아갈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 우리국민이 만들어 낸 공산품이, 중동의 열사에서 보여준 인내가 민족의 두뇌가 민주화의 열망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의 농업도, 낙농업도 이의 주체인 농민도 낙농인도 타분야와 같이 국제산업사회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위치를 굳혀나가야겠다. 국제사회에서의 불리함을 타당하고만 있을수가 없다. 기술향상과 경영합리화, 제도의 개선 및 뒷받침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여야 한다. 좁은 국토로 인한 취약점을 새로운 기술개발로 보완할수 있는 혁신적이고 한국적인 기술을 찾아야 하지않을까?

## 백색 시유의 처리와 판매는 우리손으로

원유생산에서 생산비를 줄이고 원유판매에서 높은 가격을 받더라도 원유생산만으로는 낙농가들의 소득수준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산업사회로의 발전과정을 본다면 1차산업의 종사만으로는 종사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뒤질수밖에 없어 2차3차 산업으로 연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한다.

원유생산 못지않게 2차 3차 산업에의 참여로 낙농업 발전에 기여 할수있고 낙농인으로서의 긍지도 가질수 있어 국제경쟁에서 낙농인으로서 자부할수있는 터전을 마련 할 수 있는 것이다.

백색시유 생산은 고도의 기술과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지않는다. 낙농가들의 뜻만 모은다면 쉽게 할수있는것이다. 소비자가 먹는 시유는 신선 해야된다. 생산자와



**민주협동조합이요, 낙농인들만이 모이고 그네들만을 위한 낙농협동  
조합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낙농가로서 자주 의식과 행동으로 일  
부지역에 낙농협동조합이 탄생되고 또는 이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런 바람은 올해에 더 세차게 불것이요, 또한 불지 않으면 안된다**



소비자가 가까워 원유 본래의 맛과 질을 살리면서 신선하게 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단위 시유처리는 무엇인가 잘못 되어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처리하는 방향으로 발전 하여야 한다. 원거리에서 원유를 수송해 와서 처리된 우유를 원거리에 판매하고있는 현재의 시유생산 과정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나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기존의 대단위 유가공업체는 시유생산에는 손을 떼고 새로운 유제품 개발에 전념 해야 할것이다.

최근에 배합사료 생산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된것과 같이 시유생산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하여 낙농가들의 손에 의해서 생산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 **89년은 낙협설립으로 낙농업을 이땅에**

생산농민과 소비자를 위해 낙농

업과 낙농가들의 현안문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평소 생각하고 있는 대로 정리 하였다. 집유선 일원화, 원가절감대책, 수입개방압력 저지, 소득향상등이 낙농가들이 주인정신을 갖고 주인노릇할때라야 가능한 문제들이다.

약한 농민들이 어떻게 주인노릇 할수있느냐고 반론을 제기 하겠지만 가능하다. 약한것을 강하게, 어려운것을 보다쉽게 만들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협동운동이다. 더불어 사는 마음, 한사람은 만인을, 만인은 한사람을 위하는 정신이요, 이 나라에 민주화를 조속히 정착 시키는 운동이다.

오는 7월1일이면 집유선 일원화 하겠다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인 한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고 실현 하게 할려면 낙농가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 하여야 한다.

나 한사람 한사람의 뜻이 모아진 협동 조직으로 실현 할수밖에 없다. 기존의 협동 조합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협동조합과 궤를

달리하는 민주협동조합이요, 낙농인들만이 모이고 그네들만을 위한 낙농협동조합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낙농가로서 자주 의식과 행동으로 일부지역에 낙농협동조합이 탄생되고 또는 이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런 바람은 올해에 더 세차게 불것이요 또한 불지않으면 안된다. 일정한 경제권 단위로 낙협이 설립되어 집유선 일원화를 주도하고 원유를 처리하여 신선한 시유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며 생산원가의 절감과 소득 증대로 국제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89년 한해가 되어야겠다. ■